

2010 광주봄꽃박람회
Gwangju Spring Flower Expo 2010



2010 광주봄꽃박람회 개최안내

2010년 3월 26일(금)부터 4월 4일(일)까지 10일간 화훼 산업의 국내외 교역기회 확대와 지속적인 꽃소비 창출, 화훼 농가 소득증대 등을 목표로 「2010 광주봄꽃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행사명 : 2010 광주봄꽃박람회
(Gwangju Spring Flower Expo 2010)
- ▶ 일시 : 2010. 3. 26(금) ~ 4. 4(일) / 10일간
-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및 야외일원
- ▶ 주최 : 광주광역시
- ▶ 주관 : 김대중컨벤션센터
- ▶ 전시구성
 - 주제정원 : 20여개 테마(꽃과 음악관, 꽃과 여인관, 꽃과 레저관 등)
 - 홍보부스 : 100부스 이상
 - 체험교육관 : 20여가지 프로그램
- ▶ 부대행사
 - 광주전남 화훼수출 상담회
 - 화훼장식 기능경기대회
 - 화훼 관련 전문가 학술회의
 - 생활원에 이론강의 및 체험행사
 - 현장사진 콘테스트
 - 다양한 무대공연
- 참가문의 : 2010 광주봄꽃박람회 추진사무국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락사업팀)
Tel. 062-611-2124, 3503
Fax. 062-611-2239

www.flowershow.kr



산림청,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조성에정지 공고

- 경북 봉화군 서벽리 일대 국·공유지 및 사유지 5,179ha -

내년부터 경북 봉화군 서벽리 일대에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안정적 보존·연구와 더불어 생명산업(BT), 휴양산업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을 위해 경북 봉화군 서벽리 일원 5,179ha를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예정지로 지난 21일 지정 공고했다.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예정지는 산림청,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관련전문가의 현장조사와 현지평가 과정을 거쳐 백두대간의 상징성·대표성에 부합되도록 선정했다. 해당부지는 백두대간 마루금과 수목유전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림 등 다양한 유전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설부지 입지와 기능의 상관성 및 자연생태환경,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시키는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조성예정지 공고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람 후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류광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조성예정지 공고와 함께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조성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한 협의와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 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배준규 연구사
(042-481-8866)

산림청, 제9회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전시회 개최

- 2009-10-27 오후 03:05 -

산림청(청장 정광수)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9회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전시회'가 정부대전청사 중앙홀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열린다.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산림문화분야의 대표적인 문화작품 공모전으로 국민에게 우리 숲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사진부문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시·수필, 그림·글짓기 부문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1,442점을 접수 받아 입선작을 704점 중 우수작 174점을 전시하게 된다.

이번 정부대전청사 개막 전시회에서는 세상에서 하나 뿐인 희귀한 산림 관련 우표도 함께 전시하게 된다. 특히 1956년도 나무심기 원도 등 다수의 원도를 실제 우표와 함께 볼 수 있으며, 또한 북한에서 50~60년대 발행한 무궁화 우표와 근래 국화로 지정한 함박꽃 우표 등을 볼 수 있는 등 산림과 관련된 우표 640장이 전시되어 우표를 통하여 산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다음 전시회는 다음달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숲에서,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메트로미술관(3호선 경복궁역)에서 있을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는 국립수목원 내 산림박물관에서 약 1달간 전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내 최초 「잔디 전문 산지종합유통센터」 설립 추진

– 국내 잔디 최대 주산지인 「전남 장성」에 잔디유통센터 설립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늘어나는 잔디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10년 주요 산림소득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장성에 「잔디 전문 산지종합유통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840여 농가(2,389ha)가 전국에 산재하여 잔디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연간 300억원 정도이고 생산유통 효과는 약 7,000억원에 달한 정도로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1,576농가(1,472ha 농가대비 86%, 면적대비 61%)가 전라남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성군이 최대 주산지이다. 이러한 재배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장성 잔디유통센터는 향후 국내 잔디의 수집 및 규격화·표준화를 통해 잔디 유통의 메카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잔디는 과거 주로 산이나 들에서 채취하여 토양의 유실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재되었으며, 최근 경관개선, 도시열섬 현상 완화, 심리적 안정제공 및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이 확대되어 온 입산물이다.

이종진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그동안 전문적인 잔디유통센터의 부재로 잔디가격이 중간 유통상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며, "이번 장성의 잔디유통센터 설립을 계기로 잔디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직거래 추진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잔디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박영환 사무관 (042-481-4206)

산림청, 제3회 치산분야 「신기술·신공법 콘테스트」 개최

산림청(청장 정광수)에서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치산사업에서 지역적·독자적으로 축적해오고 있는 사방·임도 등 산림토목분야만의 기술을 발굴·전파하여 지구온난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녹색성장장의 초석이 되고자 제3회 치산분야 「신기술·신공법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여 보급했다고 밝혔다.

황폐해진 산림을 최단 기간에 녹화 성공국으로 이끈 이면에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사방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녹화된 산림을 보호·관리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가꾸는 데에는 40여 년 전부터 시설한 임도사업이 기반이 되었다. 이와 같이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데 필수 기반시설인 사방·임도사업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산림청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과 국지적인 집중 호우에 따라 산사태·임도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돌·폐 등 전통적인 시공자재를 구함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이에 대처한 대체자재의 개발 부족, 수계유역과 임도 절·성토면에 대한 생태·환경적 노력 부족 등으로 기술발전의 속도가 느린 것도 사실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기상적인 외부환경과 변화에 적극 도전하여 치산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지역적으로 숨어있는 기술을 발굴·보급하고, 치산분야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축적하기 위하여 2009. 10. 29~30일에 경북 경주에서 치산분야 「신기술·신공법 콘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의 응모분야는 크게 기관·조직과 개인응모로 구분하였으며, 임도·사방·복원사업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서 독창성과 효과·경제성·실용성이 입증되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신기술·신공법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전국 치산분야 담당공무원·학계·전문기술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를 통하여 수상작을 선정하고, 이를 확대·보급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사업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녹색성장에 초석이 되기 위한 아름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림청 치산복원과 이완교 사무관(042-481-4275)

2009년 제3회 조경수조성관리사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2009년 제3회 조경수조성관리사 2·3급 최종합격자를 협회 홈페이지 자격검정-합격자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는 2009. 11. 16(월) ~ 2009. 12. 16(수)까지 자격등록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셔서 반명합판 사진 2매와 함께 협회로 보내주시고, 자격증발급 수수료(50,000원)를 입금

해주시면, 자격등록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협회에 방문하여 직접 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진 2매 지참)
(입금계좌 - 국민은행 420801-01-204019, (사)한국조경수협회)

[산림청]제1회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서둘러 응모하세요!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2월10일까지 조경, 산림, 건축, 도시계획 등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숲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대전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도시숲 부지(녹색쌈지공원 1곳, 도시산림공원 1곳) 가운데 한 곳을 설계대상지로 선택하여 도시숲 정책 방향에 맞추어 인위적 시설물 위주를 지양하고 자연에 가까운 산림, 자연형으로 설계하면 된다.

공모대전 응시자격은 조경, 산림,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관광 등 관련학과 대학(원)생으로 단독 또는 모든 구성원이 자격을 갖춘 팀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를 위해 20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seckim@jb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작품접수는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참가신청 접수증, 작품설명서, 작품판넬, CD 등을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산림청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대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0년 해외연수 신청안내(마감)

☞ 2010년도 해외연수(조경수 생산농장 등 견학)를 다음과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별첨 서식을 작성하여 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967-5791~2)

— 다음 —

- ◆ 여행 일시 및 기간 : 2010. 1. 20(수) ~ 1. 24(일)(4박 5일)
- ◆ 목적지 : 일본 오키나와 등
- ◆ 여행목적 : 조경수 생산농장 등 견학
- ◆ 여행인원 : 30명 내외
(신청자 접수 현황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될 수 있음.)
- ◆ 연수대상 : 협회 임원, 각 지회장 및 회원사(부부동반 가능)
- ◆ 여행경비 : 1인당 1,200,000 ~ 1,300,000원 내외
(전액 자부담, 계약금 : 1,000,000원 11월 30일까지 입금해야함, 환율 및 인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경비 입금처
(국민은행) 010-25-0010-848 한국조경수협회
* 연수대상자 명의로 입금바랍니다

산림청, 우리나라 산림정의 UNFCCC에 등록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내에 탄소배출권 조림(A/R CDM)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산림정의를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 등록된 조림 CDM 사업대상 산림정의 : 최소수관음폐도 10%,
최소면적 0.5ha, 최소수고 5m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을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A/R CDM사업의 세부규칙 및 절차' 제8조에 의해 우리나라 산림의 정의(定義)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A/R CDM 사업대상 산림정의를 확정하여 국무총리실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했으며, 11월 23일자로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등록되었다. 이로써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 및 투자국의 투자유치가 가능해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A/R CDM 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